

## 일본 중소기업 집단으로 해외 진출

엔高, 대기업의 해외진출을 배경으로 일본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해외진출로 인한 공동화를 우려했던 지방자치체들도 일본내 거점을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측면지원하기 시작

### □ 엔高·대기업의 해외진출이 배경

- 엔高, 대기업의 해외진출을 배경으로 일본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하마마츠시 등 산업집적지의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신흥국으로 집단 또는 단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

### □ 지자체들도 측면지원에 나서

-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우려했던 지자체들도 일본내 거점을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측면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정부도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융자제도 등을 통해 지원
- 전기, 자동차 분야의 대기업들에 이어 중소기업들도 해외에서 수익을 높이고 있음

### □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제조자회사를 설립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2006년 조사에서 7,551개사
- 일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신흥국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작년 10월 「중소기업해외전개지원회의」를 발족,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일본정책금융공고의 해외사업자금 금리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하하는 한편, 상공조합중앙금고가 해외전개를 지원하는 전문 조직을 설치
  - 해외진출기회 창출을 위해 JETRO에서 해외전시회 출전비용을 지원, 해외유력 바이어와의 상담기회 알선 등 측면지원 하고 있음
- 집단진출 현상은 1개사만으로는 자금이나 노하우면에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하마마츠시의 중소기업 10개사는 최근 동남아시아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자동차부품, 섬유, 건설 등 많은 업종에서 참가
  - 현재 인도네시아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공업단지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동 협동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임
  - 중소 금형기업이 집적해있는 군마현 금형공업회(오오타시)는 멕시코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본내 거점을 남겨놓고 협동조합 등 각사가 협력하는 형태로 진출을 검토하고 있음
  - 동경 가쓰시카구의 플라스틱 성형, 금속가공 중소기업 19개사는 11월에 베트남을 시찰하였으며, 공동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 참가기업에 의하면 당분간 엔고가 지속되면 토지나 기계 등 자본설비의 조달비용도 그만큼 싸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단독 진출하는 중견·중소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는데 발전기

등 인프라 자재부품의 금속가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마쓰모토 제작소는 내년 3월 4억엔을 투자하여 중국 광둥성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

- 거래처인 대기업이 부품의 해외조달을 확대하는 바람에 매출액이 28%나 감소했으며 이 상태로는 수주가능한 곳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플라스틱가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푸르야공업은 6월부터 태국에서 시계, 카메라 등의 부품제작을 시작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일본정책금융공고의 해외전개자금은 금년 4~9월 기간 중 이용건수가 250건으로 전년 동월비 거의 배가 증가함. 내년부터 융자대상을 소규모사업자에도 확대한다는 방침
- 종업원 4~29명의 기업들의 2009년 제조업 출하액은 1990년에 비하여 43%나 감소한 것으로 경산성이 발표. 동일본 대지진에다 사상 유례없는 엔高까지 겹쳐 소규모기업들까지도 해외진출을 검토하기 시작
- 한편, 산업집적지에 있는 중소공장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일본 내 대표적인 지방공장 집적지인 히가시오오사카시에서는 종업원 4명 이상인 공장수가 2년전보다 15% 감소
- 동경도의 오오타구가 20%, 스미다구가 23%,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가 21%, 효코현 아мага사키시가 19%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
- 이러한 가운데 지자체들은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을 저지하기 보다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익을 벌어들여 연명하는 쪽이 산업공동화를 저지하는데 효과적이라도 보고 진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오오타구에서는 무역실무나 해외사업 상담, 외국어자료 번역 등의 측면지원을 전개하고 있음

- 지자체 관계자에 의하면 해외사업실적이 많은 중소기업일수록 평가가 높아지며, 오히려 국내에 머무르는 쪽이 위험하다는 것임
- 시즈오카현은 동남아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조사를 위한 시찰투어 개최. 군마현도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찰에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시사점

- 엔高, 일본내 사업환경의 상대적 악화 등으로 일본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사례는 산업공동화를 우려할 만큼 일반화된 현상임
  - 그러나 산업집적지에 있는 기업들이 집단을 이루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현상임
  - 더욱이 관련 업계나 관련기관 등이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까지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기업을 유치하려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동경의 오오타구나 히가시오오사카시와 같은 산업집적지의 중소기업들은 우리 산업(특히 supporting industry : 기반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점에 주목, 중국 등 다른 일본기업 유치경쟁국보다도 우리쪽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일본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배경에는 엔高→ 일본 수출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라는 직접적인 배경 외에, 엔高→ 일본 대기업의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라는 대기업 동반형 해외진출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 대기업과 연결(matching)시키는 방향으로의 유치정책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기업들은 결코 한계기업들이 아니고 해외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들임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에 대한 유치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2011.10.31) 외